

2005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 언어 영역

- 먼저문제지에 성명과수험번호를 정확히기입하십시오 .
- 답안지에수험번호 , 문형 , 답을정확히표기하십시오 .
- 문항에따라배점이 다르니 , 각문항의끝에표시된배점을참고하십시오 . 1 점과 3 점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점수표시가 없는문항은모두 2 점씩입니다 .

1 번부터 6 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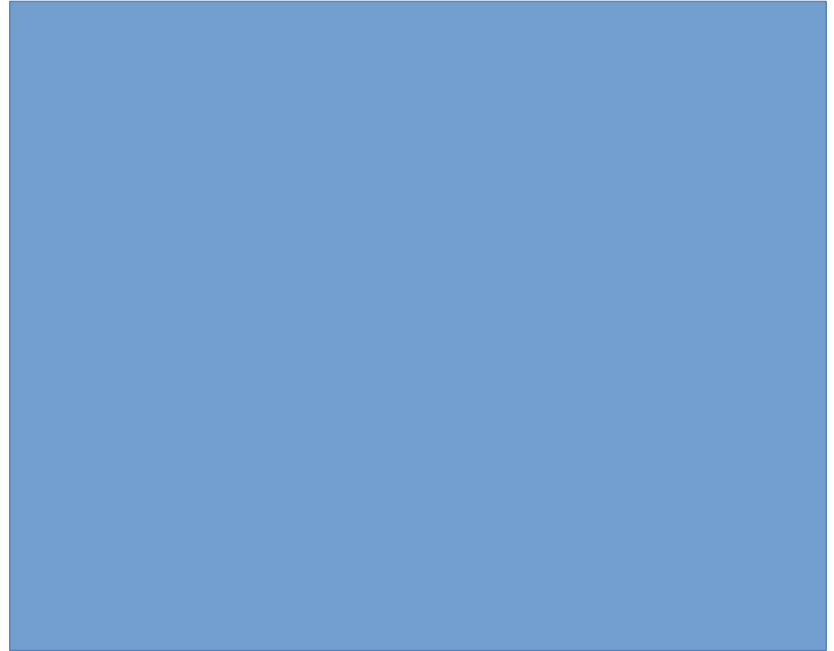
않은 것은? [1 점]

않은 것은? [1 점]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 7 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

# 언어 영역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글을 쓰고자 한다.  
그림을 두 가지씩 연결하여 구상한 글의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주제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주제문 수정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

○ 최소화방안을 추가함  
(3) 개인정보보호방안 마련

않은 것은?

제 목 : 인터넷 실명제 실시 신중해야  
주제문 : 인터넷의 사용 실태와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최소화 방안은 ?  
서론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문제 제기  
본론 :  
1.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최소화 방안  
(1) 사용자들의 인식 제고  
(2) 내부 고발자 보호 근거 마련  
2. 인터넷 실명제의 긍정적 측면  
(1) 인터넷 범죄 감소  
(2) 허위 사실 유포 감소  
3. 인터넷 실명제의 부정적 측면  
(1) 비판 기능 약화  
(2)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증대  
결론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관심 촉구

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논지를 보강하기 위해 항목을 추가함  
(3) 인터넷 게시판 사용자 증가

○ 논지를 구체화함  
정부 비판 기능 약화  
기업 비판 기능 약화

않은 것은? [3 점]

Two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es for answer input.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dashed border, likely a placeholder for a diagram or additional notes.

Two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es for answer input.



# 언어 영역

- ㉠-주체 ㉡-주체
- ㉠-주체 ㉡-주체
- ㉠-대상 ㉡-듣는 이
- ㉠-듣는 이 ㉡-주체, 듣는 이
- ㉠-대상 ㉡-주체, 듣는 이



# 언어 영역

라는 공연한 사치로 이해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신영복, 매직펜과 붓 -

땅에서 하늘로 뻗쳐 올라가는 힘이다. 분수는 ☹

대지의 중력을 거슬러 역류하는 물이다. 자연의 질서를 거역하고 부정하며 제 스스로의 힘으로 중력과 투쟁하는 운동이다. 물의 본성에 도전하는 물줄기이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천연의 성질, 그 물의 운명에 거역하여 그것은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듯이 솟구친다. 가장 물답지 않은 물, 가장 부자연스러운 물의 운동이다. 그들은 왜 분수를 좋아했는가? 어째서 비처럼 낙하하고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그 ☹

물의 표정과 정반대의 분출하는 그 물줄기를 생각해 냈는가? 같은 힘이라도 폭포가 자연 그대로의 힘이라면 분수는 거역하는 힘, 인위적인 힘의 산물이다. 여기에 바로 운명에 대한, 인간에 대한, 자연에 대한 동양인과 서양인의 두 가지 다른 태도가 생겨난다.

창조의 힘이란 것도, 문명의 질서란 것도, 그리고 사회의 움직임이란 것도 실은 저 광장에서 내뿜고 있는 분수의 운동과도 같은 것이다. 중력을 거부하는 힘의 동력, 인위적인 그 동력이 끊어지면 분수의 운동은 곧 멈추고 만다. 끝없이 인위적인 힘, 모터와 같은 그 힘을 주었을 때만이 분수는 하늘을 향해 용솟음칠 수 있다. 이 긴장, 이 지속, 이것이 서양의 역사와 그 인간 생활을 지배해 온 힘이다.

- 이어령, 폭포와 분수 -

않은 것은?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은 병을 병째 펜처럼 들고 사용하도록 만든 편리한 문방구(??)입니다. 이것은 붓글씨와 달리 특별한 ㉠

누가 굿더라도 정해진 너비대로 줄을 칠 수 있습니다. 먹을 갈거나 붓끝을 가누는 수고가 없어도 좋고, 필법(??)의 수련 같은 귀찮은 노력은 더구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휘발성이 높아 건조를 기다릴 것까지 없고 보면 가히 인스턴트 시대의 총아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편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이 위를 지날 때 내는 날카로운 마찰음 - 기계와 기계의 틈새에 끼인 문명의 비명 같은 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달려들 듯 다가오는 그 ㉡ 자극성의 냄새가 좋지 않습니다.

처럼 가는 획에서 필관(??)보다 굵은 글자에 이르기까지 흡사 피리 소리처럼 이어지는 그 폭과 유연성이 좋습니다. 붓은 그 사용자에게 상당한 양의 노력과 수련을 요구하지만 그러기에 그만큼의 애착과 사랑을 갖게 해 줍니다. 붓은 좀체 호락호락하지 않은 매운 지조의 선비 같습니다.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소위 '동도서기(ビコ?)'라는 절충의 논리를 수궁하는 뜻이 아닙니다. 비추어, 비록 상당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 경중, 선후를 준별하고 하나를 다른 하나에 종속시키는 실천적 파당성(??)이 도리어 '시중(??)'의 진의이며 중용의 본도(??)라고 생각됩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먼저 할래?

누가 제일 예쁘니?

누구를 사랑하는지 물었다.

누구든 나한테 한 명만 보내 줄래?

# 언어 영역

[20~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오늘날 여성들은 체중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빈부, 노소를 떠나서 하나같이 날씬해지기를 원하고 그러한 욕망은 다이어트 열풍으로 이어진다. 몸이 우리의 다양한 욕구나 자기 표현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다이어트 열풍은 우리 사회를 읽어 내는 하나의 ㉠ 거울이 될 수 있다.

몸에 대한 관심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 사회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1930년대에는 바싹 마른 몸매의 여성이, 1950년대에는 마릴린 먼로와 같이 풍만한 몸매의 여성이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대공황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1930년대에는 일하는 여성이 필요했기에 민첩해 보이는 마른 여성이 매력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경제 사정이 좋아지기 시작한 1950년대에는 여성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라는 풍조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풍만한 곡선미를 지닌 여배우의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소비 사회에서 몸은 자연스럽게 자기 표현의 중심이 된다. 산업의 발달로 물질이 풍요해지자 인간은 다양한 소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고 믿게 되었다. 오늘날 소비는 대중 매체에 의해 조

영상 매체에서 본 이미지를 모방하여 자신을 표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소비를 통한 자기 표현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규 능동적인 자기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소비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행위는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날씬한 여성의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도 이와 밀접하게 닿아 있다. 모든 유형의 다이어트가 오늘날과 같은 이유로 행해진 것은 아니다. 중세에 다이어트는 종교적 생활 양식에서 영혼을 통제하려는 훈육(?)의 한 방법이었고, 18세기

음식의 양과 유형을 조절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달리 오늘날의 다이어트는 대부분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서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외모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이러한 다이어트 열풍을 부추겼으며, 대중 매체를 통해 점점 더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있다.

㉡

자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몸에 대한 관심은 자본주의의 매력적인 몸매에 대한 강박 관념을 강화하고, 사람들을 다이어트를 통한 날씬한 몸매 만들기 대열에 합류시킨다. 이처럼 대중 매체 속에서 만들어진 획일화된 몸 이미지는 우리에게 더 이상 몸은 없고 몸 이미지만 남게 한다.

않는 것은? [1 점]

면 것끼리 묶인 것은?

거울이 된다.

거울이다.

거울 속에 비친 풍경은 고즈넉했다.

거울은 유리 뒤쪽에 아말감을 발라 만든다.

거울로 삼아 더욱 분발했다.

면 것은?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언어 영역

오늘날 영화 한 편에 천만 명의 관객이 몰릴 정도로 영화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영화 초창기인 1930 년대에 발터 벤야민(W. Benjamin)이 영화를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있어 흥미롭다. 그에 따르면 영화는 전통적인 예술 작품이 지니는 □

아우라(Aura)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우라는 비인간화되고 사물화된 의식과 태도를 버리고, 영혼의 시선으로 대상과 교감할 때 경험할 수 있는 □

아름다운 향기 내지 살아 숨쉬는 듯한 생명력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 가까이 있으면서도 저 멀리 있는데, 대상과 □ 영혼의 교감을 통해 몰입할 때, 그때 어느 한 순간 일회적으로 나타난다. 예술 작품은 심연에 있는 아우라를 불러내는 것이고, 수용자는 그런 예술 작품과의 교감을 통해 아우라를 경험한다. 그런데 사진이나 카메라 등과 같은 기계적, 기술적 장치들이 예술의 영역에 침투하면서 예술 작품의 아우라는 파괴되는데, 벤야민은 그 대표적인 예로 영화를 든다.

벤야민은 영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관객의 자리에 카메라가 대신 들어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연극의 경우 배우와 관객은 직접적으로 교감하면서, 배우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을 연출해 보이고 관객의 호흡에 맞추어 연기를 할 수 있다. 관객은 연극의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아우라를 그 주인공 역할을 하는 배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의 경우 배우와 관객 사이에 카메라가 개입된다. 배우는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지만, 카메라라는 기계가 갖는 비인간적 요소로 인해 □

시선의 교감을 나눌 수 없게 된다. 관객은 □

스크린에 비친 영상만을 접하기 때문에 배우와 교감할 수 없고, 다만 카메라와 우리 해동 삼국은 역사가 오래되어 그 사실이 웅당 ㉠ 일지감을 느낄 때만 배우와 일지감을 느낄 수 있다. 이로 인해, 관객은 카메라처럼 배우를 시각적으로 시험하고 비평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 결과 배우는 모든 교감의 관계가 차단된 유배지 같은 곳에서 카메라를 앞에 두고 재주를 부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배우를 감싸고 있는 아우라도, 배우가 그려내는 인물의 아우라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영화 배우의 연기는 하나의 통일된 작업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개별적 작업이 합쳐져서 이루어진다. 이는 연기자의 연기를 일련의 조립할 수 있는 에피소드로 쪼개어 놓는 카메라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카메라에 의해 여러 측면에서 촬영되고 편집된 한 편의 완성된 영화에 담긴 동작의 순간들은 카메라 자체의 그것일 뿐이다. 영화 배우는 각 동작의 순간순간에 선별적으로 배치된 여러 소도구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카메라에 의해 조립된 영상들에 아우라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이런 점들을 들어, 벤야민은 전통적인 예술이 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상(。?)의 왕국으로부터 예술과 그 수용층이 멀어지고 있음을 영화가 가장 극명하게 보여 준다고 비판한다. 영화 초창기에 대두된 벤야민의 이러한 비판이 오늘날 문화의 총아로 각광받는 영화에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다른 하나는? [1 점]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먼 것은? [1 점]

우리 해동 삼국은 역사가 오래되어 그 사실이 웅당 ㉠

책에 밝혀져야 되겠기에, 늙은 신에게 명하여 이를 편집토록 하였으나, 스스로 돌아봐도 부족할 따름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성상 폐하께서는 (... 중략 ...) "오늘날 학사·대부들이 오경·제자의 글 및 진한·역대의 사서(??)에 대하여는 간혹 환하게 알아 상세히 말하는 자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일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아득하여 그 전말을 알지 못하니, 매우 개탄할 노릇이다."라고 여기셨습니다. 더군다나 신라, 고구려, 백제가 나라를 열어 출발처럼 맞서면서도 능히 예의로써 중국과 통하였기에, □한서□와 □당서□에 모두 그 열전이 있기는 하나, 국내는 상세히 하고 외국은 간략히 하는 ㉡

바람에 그 일이 자세히 실리지 않았습디다. 또 그 고기(西)란 것도 문자는 거칠고 불합리하며 사적(??)은 빠지고 없어져서, 임금의 선함과 악함, 신하의 충성스러움과 간사함, 나라의 평안함과 위태로움, 백성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을 모두 드러내어 이로써 ㉢

후세에 권장하거나 경계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뛰어난 인재를 얻어 훌륭한 사서를 이름으로써, 이를 만세토록 남기어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신과 같은 자는 본래 뛰어난 인재도 아니고 깊은 지식도 없을 뿐더러, 황혼의 나이에 이르러 날로 혼미해져서, 글을 부지런히 읽어도 책을 덮으면 바로 잊어버리고 붓을 잡아도 힘이 없어 종이를 대하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신의 학술은 이렇게 짧고 얇은데 옛 사적은 저렇게 깊고 아득합니다. 이 때문에 온 정력을 쏟아 겨우 책을 엮었으나, 끝내 보잘 것이 없어 스스로 부끄러울 뿐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성상 폐하께서는 두서 없이 간추린 숨씨를 양해하시고 되는 대로 만든 죄를 용서하옵소서. 비록 명산에 간직할 거리는 못 될지라도, 장독 달개로 쓰이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구구히 망령된 뜻은 밝은 해가 굵어 비출 것입니다.

- 김부식, 진삼국사기표 -

을 말씀하지 않았다. 동명왕의 일은 황당하고 기괴하여 우리들이 얘기할 것이 못 된다."

라고 말하였다. ㉣

나중에 □위서□와 □통전□을 보매 역시 그 일이 자세히 못하니, 국내는 자세하고 외국은 소략히 하려는 뜻인지도 모르겠다. 지난번에 □구삼국사□의 「동명왕본기」를 보니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귀(ㄹ)나 환(?)으로만 생각하였는데, 세 번 되풀이 읽어 점점 ㉤ 근원에 들어가니, 환이 아니고 성(?)이며 귀가 아니고 신(?)이었다. 하물며 국사는 사실 그대로 쓰는 글이니 어찌 허탄한 것을 전하랴. 김부식 공이 국사를 중찬하면서 그 일을 자못 생략하였으니, 국사는 세상을 바로잡는 글이므로 크게 이상한 일은 후세에 보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생략한 것이 아닌가? 「당현중본기」와 「양귀비전」에는 방사(??)\*\*가 하늘에 오르고 땅에 들어갔다는 일이 없는데, 오직 시인 백낙천이 그 일이 인멸될까 두려워 노래로 기록하였다.

## 언어 영역

저것은 실로 황당하고 음란하고 기괴하고 허탄한데도 읊어서 후세에 보였다.  
히물며 동명왕의 일은 변화의 신이함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창시한 신성한 사적이니, 이를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보겠는가. 이에 시로써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임을 천하에  
알리고자 한다. - 이규보, 동명왕편 서(?) -

\* 괴력난신(X?㉔?):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존재나 현상.

\*\* 방사(??): 신선의 도술을 익히는 사람.

얹은 것은?

예  
예  
예

예  
예



# 언어 영역

않은 것은?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날 밤 승용차 안의 사나이가 우리 동네의 나머지 입주권을 모두 사 버렸다. 그는 다른 투기업자들이 이십이만 원에 사는 것을 이십오만 원씩 주고 모두 사 버렸다. ㉠

그날 밤에도 영희는 팬지 꽃 앞에 앉아 기타를 쳤다. 영희는 팬지 꽃 두 송이를 따 하나는 기타에 꽂고 하나는 머리에 꽂았다. 그리고, 꼼짝도 하지 않고 기타만 쳤다. 사나이가 아버지에게 담배를 권했다.

"이십오만 원이 분명하죠?"

어머니가 물었다. 사나이를 따라온 나이 든 사람이 검은 가방을 열어 돈을 보여 주었다. 그는 마루에 앉아 매매계약서를 썼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 서류가 든 봉투와 도장을 가지고 나왔다. 아버지는 계약서 매도자란에 '㉡?'라고 쓰고 도장을 눌렀다. 나이 든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아버지 이름이 갖는 아픈 바람의 뜻을 그가 알 리 없었다. 어머니는 소중하게 싸 두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넘겨주었다.

식칼자국이 난 표찰, 아침수저를 놓고 가슴을 세 번 치게 한 철거계고장, 짐을 할값에 버리기 위해 생전 처음 내본 인감증명 두통, 미리 서명해 두었던 명의 변경 신청서, 힘 하나 없는 식구들의 이름과 나이가 차례대로 적혀 있는 주민 등록 등본 두 통.

마당가 팬지 꽃 앞에 앉아 있던 영희가 고개를 숙였다. 사나이가 돈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머리를 저으며 뒤로 물러앉았다. 아버지가 그것을 받았다. 꼭 삼 초 동안 들고 있다가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돈을 받아 들었다.

㉢

다음날 아침, 명희 어머니는 사람들을 시켜서 집을 헐었다. 어머니가 십오만 원을 갚았다. 두 부인은 손을 마주 잡은 채 아무 말도 못 했다. 용달차가 좁은 골목을 뚫고 들어와 명희네 집을 실었다. 명희 어머니가 치마를 올려 눈물을 닦았다.

"에유, 정이란 게 뭔지!"

명희 어머니가 말했다.

"정이란 게 이렇게 더러운 게라우."

그 말이 우리의 눈에 고춧가루를 뿌렸다. 용달차가 집 앞을 지나갔다. 아버지는 오른손을 반쯤 올렸다 내렸다. ㉣

왼손에는 책이 들려 있었다. 지섭의 책에 아버지의 손때가 까맣게 묻었다. 아버지와 지섭은 우리에게 대기권 밖을 날아다니는 사람들로 보였다. 두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달을 왕복했다.

"살기가 너무 힘들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래서 달에 가 천문대 일을 보기로 했다. 내가 할 일은 망원렌즈를 지키는 일야. 달에는 먼지가 없기 때문에 렌즈 소재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지. 그래도 렌즈를 지켜야 할 사람은 필요하다."

"아버지, 도대체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넌 이때까지 뭘 배웠니?"

아버지가 말했다.

"뉴턴이 그 중요한 법칙을 발표하고 삼 세기가 지났어. 너도 그걸 배웠지? 국민학교 때부터 배웠어. 그런데 우주에 관한 기본 법칙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그런데 누가 아버지를 달에 모시고 가겠대요?"

"지섭이 미국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 센터에 편지를 썼다. 그곳 관리인 로스 씨가 답장을 보내올 거야. 후년에 우주 계획 전문가들과 함께 달에 가게 될 거다."

"그 책을 돌려주세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그는 미쳤어요."

"이 책의 사진을 봐라. 이 사람은 프란시스 베이컨이고, 이 사람은 로버트 고다드다. 당시 사람들이 미치광이로 지목했던 인물들이야. 이 미친 사람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아니?"

"몰라요."

"넌 학교에서 죽은 교육을 받았어."

"어쨌든 그 책을 돌려주세요."

"너희들은 내가 이 땅에서 끝까지 고생하다 바짝 마른 물골로 죽기를 바라고 있지? 힘든 일에 놀려 허우적거리다 숨을 거두기를 바라고 있는 것 아니냐?"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너희들은 왜 지섭에게 아무것도 배울 생각을 하지 않니?"

"도대체 뭘 배우라는 말씀예요?"

"로스 씨의 편지를 받기 전에 보여 줄 것이 있다. 지섭에게 말해서 쇠공을 쏘아 올려 보여 주마."

㉤

"없지?"

"네."

"찾지도 못하면서 밤새도록 어디 가 있었니?"

나는 돌멩이를 집어 다시 방죽을 향해 던졌다. 어머니도 기진해 다른 말을 못 했다. 형이 어머니의 등을 밀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아침이었다. 백여 채의 집이 헐리고 남은 것은 몇 채 안 되었다. 우리도 영희만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전날 떠났을 것이다. 철거일을 어겨야 할 다른 이유는 없었다.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 며칠은 우리에게 악몽과 같았다. 우리는 영희를 찾아 헤매었다. 영희를 본 사람은 없었다. 영희는 가방도 들지 않고 집을 나갔다. 갖고 나간 것은 줄 끊어진 기타와 팬지 꽃 두 송이뿐이었다. ㉥

## 언어 영역

나는 좀 큰 돌맹이를 집어  
던졌다. 이번에도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잔물결이 수초 사이로 밀려왔다.

-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얇은 것은? [1 점]

---

얇은 것은? [3 점]

얇은 것은?

---

얇은 것은? [1 점]

---

사나이의 목소리로 회상 장면에서 돌아오도록 한다.



# 언어 영역

[38~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엽편주(?????)를 만경파(?q?)\*에 띄워 두고  
인세(??)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굽어보면천심(??) 녹수(ㄷ) 돌아보면만첩(??) 청산(??)

십장(??) 흥진(??)\*\*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에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장안(??)을 돌아보니 북궐(?◆)이 천리(??)로다  
어주(??)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이 없으랴.

\* 만경파(?q?): 넓은 바다 물결.

\*\* 흥진(??):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제세현(???):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인재.

- 이현보, 어부단가 -

내 가슴에 독(ジ)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한 일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흠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 위협하고

독 안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억만세대(???)가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에 땅덩이 모지라져 모래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앓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한디!' 허나  
앞뒤로 텅비는 이리 승냥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리매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퀴우라 내말긴

신세임을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가리라  
막음 날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 김영랑, 독(ジ)을 차고 -

아홉 켄레의 신발.  
아니 현관에는 아니 들간에는

시인의 가정에는

알 전등이 켜질 무렵을  
문수(??)가 다른 아홉 켄레의 신발을.

내 신발은  
십구문반(?◆??).

눈과 얼음의 길을 걸어,  
그들 옆에 벗으면  
육문삼(???)의 코가 납작한  
귀염둥아 귀염둥아  
우리 막내둥아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얼음과 눈으로 벽(?)을 짜올린  
여기는  
지상.

연민한 삶의 길이어.

내 신발은 십구문반(?◆??).

아랫목에 모인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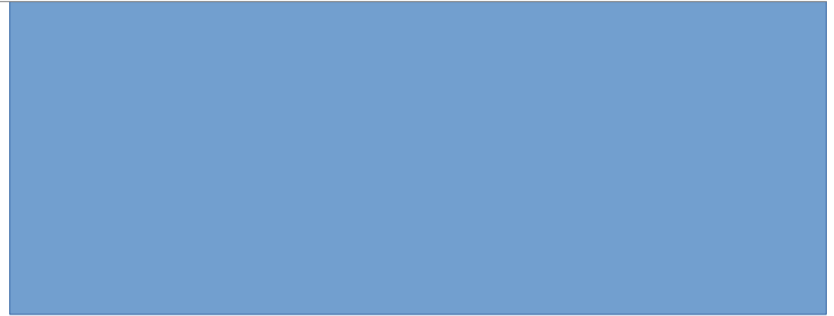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십구문반(?◆??)의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 박목월, 가정(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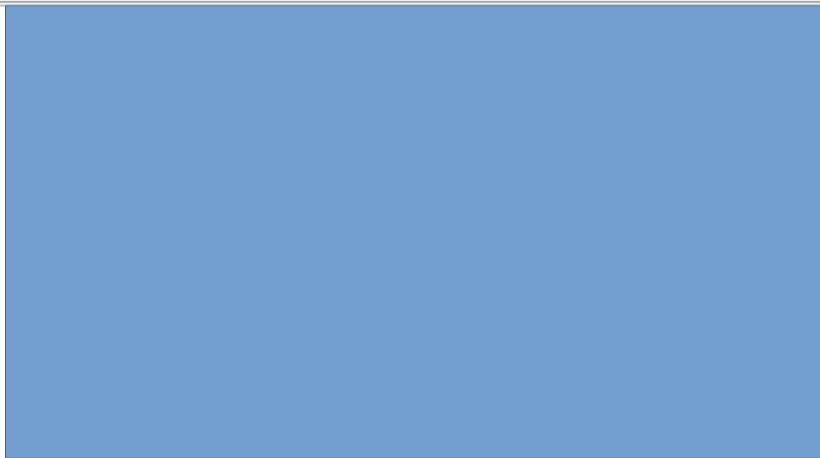
# 언어 영역

않은 것은?



아닌 것은?

않은 것은? [3 점]



않은 것은? [1 점]

- 박봉우, 휴전선의 나비 -

- 김종길, 단풍 -

제 입술로 훑아주는 가녀린 풀잎

- 이성복, 오래 고통받는 사람은 -

- 광재구, 사평역(???)에서 -

- 정호승, 겨울강에서 -

않은 것은? [1 점]

[45~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434년 7월 1일, 조선 왕조는 자격루(?\*?)라고 불리는 자동 물시계를 국가의 새로운 표준 시계로 채택했다. 세종의 명을 받은 장영실은 더 정확한 물시계를 만들기 위해 시각을 측정하는 잣대의 길이를 4 배 가량 키워 눈금을 세밀하게 새겨 넣고, 물받이 통을 비울 때도 연속적으로 시간을 썰 수 있게 통을 2 개로 늘렸다. 여기에 자동으로

# 언어 영역

시간을 알려 주는 장치를 더하여 자격루를 완성하였다.

자격루는 시각을 측정하는 물시계, 물시계에서 측정된 시간을 소리로 바꿔 주는 시보 장치, 물시계와 시보 장치를 연결해 주는 방목(??) 등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만 원짜리 지폐에서 볼 수 있는 물시계 부분은, 물을 공급하는 항아리인 파수호에서 물을 흘러 보내면 물받이 통인 수수호에 물이 고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수수호에 띄워 놓은 잣대가 고인 물의 부력에 의해 떠오르면 잣대에 새긴 눈금을 읽어 시각을 알아낸다. 따라서 물시계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수수호를 튼튼하게 제작하여 물이 가득 찼을 때 받는 수압에도 변형되지 않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다. 실제 자격루의 수수호는 지금까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시보 장치의 상단에 설치된 3 개의 시보 인형은 시(?), 경(Z), 점(?)마다 각각 종, 북, 징을 쳐서 시간을 알린다. 시보 인형 가운데 하나는 시를 알려 준다. 매 시각마다 인형의 팔뚝과 연결된 제어 장치가 작동하여 인형의 팔뚝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종을 울리게 한다. 시를 담당한 인형이 종을 울리면 곧이어 시보 장치 하단에서 12 지신 가운데 그 시에 해당하는 동물 인형이 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나온다. 예를 들어 자시(??)에는 쥐 인형이 '자(?)'라는 글자가 적힌 팻말을 들고 나와 지금 울린 종소리가 자시라고 알려 준다. 이러한 일련의 동작은 시보 장치 안에 있는 복잡하면서도 정교한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진행된다. 경과 점을 알려 주는 다른 2 개의 인형은 경점법이라는 우리의 고유한 시간 표시 방법에 따라 작동하면서 시간을 더 자세하게 알려 준다.

아날로그-디지털 신호 변환기의 원리가 들어 있는 방목은 시보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 즉, 수수호에 물이 차올라 잣대가 떠오르면서 방목 안에 설치된 장치가 구리로 만든 작은 구슬을 차례대로 떨어뜨린다. 연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물의 양인 아날로그 신호가 일정한 간격마다 구슬이 떨어지는 불연속적인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슬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는 시보 장치에 전달되어 시간을 알려 주는 데 사용된다. ㉠

파수호	잣대	시보 장치
파수호	방목	시보 장치
잣대	시보 장치	방목
수수호	방목	시보 장치
수수호	잣대	방목

잘못된 것은?

한마디로

말해 자격루는 디지털 방식을 도입한 기계식 시계인 셈이다.

한편, 조선 왕조에는 자격루가 제작되기 전부터 시간을 측정하고 알려 주는 일을 담당하는 관청이 있었다. 물시계를 맡은 관리는 밤낮으로 물시계를 지켜보면서 시간을 알려 주었는데, 가끔씩 제때를 놓쳐 처벌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 시보 장치를 가진 정확한 물시계의 제작은 모든 시계 제작 기술자의 꿈이었으며, 예로부터 정확한 시간을 알려 줄 책무를 지닌 왕의 소망이기도 하였다. 자격루는 그 꿈을 실현시킨 15 세기의 첨단 기술이었던 것이다.

않은 것은?



# 언어 영역

[49~5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부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래방을 통해 청소년 문화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노래방 문화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밀폐된 공간이다. 이런 밀폐된 공간에 청소년들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소년이 밀폐된 방을 찾아가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만의 문화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밀폐된 '방'을 나와 탁 트인 사회의 억압한다. 청소년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을 광장에서 찾기는 어렵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노래방으로 향한다.

그런데 문제는 노래방 역시 청소년들만의 온전한 문화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이 노래방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가기란 매우 어렵다. 청소년들이 노래방에서 기성세대와는 다른 노래를 다른 방식으로 부르기에, 언뜻 보면 기성세대의 문화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상업주의에 물든 기성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문화도 상업 논리에 지배된다. 대중 음악도 예외가

침윤되어 가고 있다. 실험적인 문화를 창출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  
청소년들이 상업화된 노래를 부르며 창의성을 상실해 가는 자리가 바로 노래방인 것이다.

향유하면서 다양한 문화 체험을 통해 창의적인 자기 계발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무라는 점 또한 보여 준다. 청소년은 기성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 빛깔에 물드는 스펀지와 같은 존재도 아니고 기성세대에 무조건적으로 대항하는 존재도 아니다. 청소년의 창의성이 한껏 발휘될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이 마련된다면, 청소년 문화는 활성화되어 건강하게 꽃필 것이다. 이때 청소년은 기성세대의 보호와 감시의 대상이 아니라 밝고 건강한 문화를 창출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되며, 청소년 문화는 우리 문화에 새로운 기운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 점]

잘못된 것은?

[53~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청이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전후 지낸 일이 다 정한 운명인 줄 알고, 더욱 슬퍼하여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말씀을 듣고 보니 저의 전생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

지나간 고생과 지금 병든 아버가 굶주리고 슬퍼하여 죽게 될 일을 생각하니 간장이 미어지는 듯합니다."

하니, 용왕이 말하기를,

"이

무궁한복을 누릴 것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하고 시녀를 명하여 다과를 내와서 떡이라 하니, 얼마 후에 시녀가 붉은 소반에 차를 내오는데 백옥 잔에 안개 같은 차와 대추 같은 과일이었다. 청이 받아먹으니 정신이 맑아져서 전생의 일이 분명히 기억났다. 부왕

## 언어 영역

(??)의 용안을 새롭게 알아보며, 좌우 시녀가 전생에 자기 앞에서 심부름하던 무리인 줄 아니 반갑기 그지없었다. 자기가 본디 천일주를 맡아보다가

노군을 불쌍히 여겨 술을 흠쳐 먹이던 일이 어제 일처럼 생각나니, 슬픈 마음이 새로워 부인을 우리러 눈물을 흘리며,

"제가 인간 세상에서 고초를 겪던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두렵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왔으니 도로 나가지 말고 여기 머물기를 원합니다."

부인이 말하기를,

"너는 슬퍼하지 말아라. 이제 다시 인간 세상에 나가면 전날의 고초는 일장춘몽이 될 것이니 어찌㉠

천명을 어기겠느냐?"

하고, 시녀를 명하여,

"청을 후원 별당으로 인도하여 편히 쉬게 하라."

하였다.

청이 시녀를 따라 후원 별당에 이르니 집안에 벌여놓은 것들이 모두 전날에 보던 것이었다.

이때 심현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딸이 문을 나가 어디로든 가는 모양이나 보려 하나 눈이 감겼으니 어찌 볼 수가 있겠는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가 문득 기절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이웃 사람들이 그 형편을 참혹히 여겨 붙들어 손발을 주무르고 더운물을 입에 떠 넣어 구호하니,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려 손으로 벽을 치며 통곡했다.

앞 못

추위와 더위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벌어다가 잠시도 배고프지 않게 해 주더니, 이제 아버지를 위하여 이렇게 되었으니 네 정성은 지극하나 내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아아, 하늘이여, 집안 살림이 어렵거든 눈이나 성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거나 집안 살림이 넉넉하거나 할 일이지, 제 어찌 애를 그토록 태우며 죽을 곳에 나아갔단 말이나? 슬프다! 자식이 병들어 죽어도 참혹한데 나는 오랜 병에 성한 자식을 눈앞에서 비명원사(????)케 하니, 설령 천지귀신이 그릇되게 여기지 아니하여 눈이 뜨인들 어찌 홀로 살아 이 설움을 참고 견디리오?"

하며, 이렇듯 밤낮으로 청을 부르며 통곡하니 이웃 사람이 그 우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공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홀로 애통해 하다가 스스로 위로하여 더듬어 보니, 청이 벌어다 모아 둔 양식과 마른 고기 반찬과 익힌 음식이 그릇마다 담겼거늘, 만지는 족족 가슴이 막히고 간장이 녹는 듯하여 아무리 슬픔을 억제하려 하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다시금 딸을 부르짖어,

"불쌍하다, 너는 병신 아버지를 이같이 먹여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너를 죽을 곳에 보내고도 태연하니 이게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하겠느냐?"

하며, 밤낮없이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다. 눈바람이 몰아쳐 뼈에 사무치고 적막한 빈집에 인적이 끊어지니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청이뿐이었고, 얼굴은 헐쭉하여 뼈만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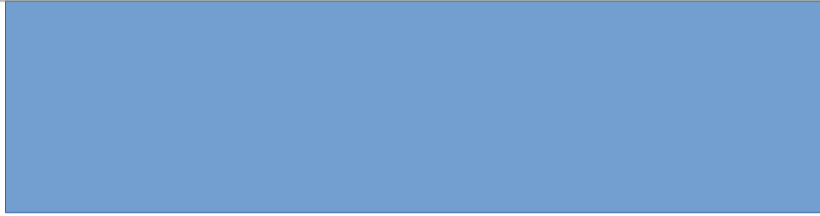
- 심청전 (경판본) -

# 언어 영역

생명체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생태계의 환경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생물다양성은 □

먼 것은? [1 점]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가치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의약품 개발을 꼽을 수 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식물 중에서 인류는 약 20,000여 종의 식물을 약재로 사용해 왔다. 그 가운데 특정 약효 성분을 추출하여 상용화한 것이 이제 겨우 100여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전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치는 상상을 뛰어 넘는다. 그리고 부전나비의 날개와 사슴벌레의 다리 등에서 향암 물질을 추출한 경우나 야생의 미생물에서 페니실린, 마이신 등 약 3,000여 가지의 항생제를 추출한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동물과 미생물 역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의약품 개발 외에도 다양한 생물이 화장품과 같은 상품 개발에 이용되고 있으며, 생태 관광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한다.

□

먼 것은?

생물다양성은 학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다윈(Darwin)은 현존하는 여러 동물들의 상이한 눈을 비교하여, 정교하고 복잡한 인간의 눈이 진화해 온 과정을 추적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눈은 해파리에서 나타나는 원시적 빛 감지 세포로부터, 불가사리처럼 빛의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오목한 원시 형태의 눈을 거친 다음, 빛에 대한 수용력과 민감도를 높인 초기 수정체 형태의 눈을 지나, 선명한 상을 제공하는 현재의 눈으로 진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모든 생물종은 고유한 형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생물 진화의 과정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형태적 특성 외에도 각각의 생물종이 지닌 독특한 생리적,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생물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정보는 오늘날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생명과학의 기초가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은 생물다양성에 기초하여 무한한 생태적, 경제적 이익을 얻고 과학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 그런데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와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자연 파괴로 생물다양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생태계 보존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연구 기관을 건립하고 전문 인력의 양성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않은 것은?

않은 것은? [1 점]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란 원래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표현하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종의 다양성은 물론이고, 각 종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다양성과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다양성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사용한다. 특히 최근에는 생태계를 유지시키고 인류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크게 주목받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

생태적 봉사 기능을 들 수 있다. 생물은 생태계의 엔지니어라 불릴 정도로 환경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 숲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나무들은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땅 속에 있는 물을 끌어 올려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숲이 사라지면 수분 배분 능력이 떨어져 우기에는 홍수가 나고 건기에는 토양이 완전히 말라 버린다. 이로 인해 생물 서식지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마침내 상당수의 종이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 물, 흙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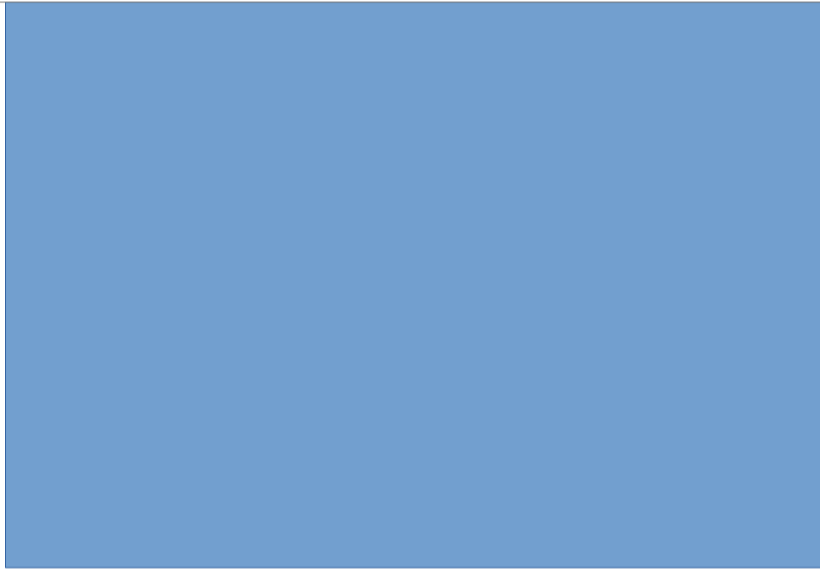
## 언어 영역



㉠

㉡ ㉢

않은 것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 ( 표기 )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